

경제

‘2년 이상 사내하청 근로자 정규직’ 대법 판결 ... 산업계 비상

기아차등 광주·전남 1만여명 해당 막대한 비용 부담, 사전 해고 우려

‘제조업체 사내하청 노동자가 2년 이상 근무했다면 원청업체의 정규직으로 국내 산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자동차업체는 물론 조선·철강·타이어 등 산업 전반에 협력업체의 직원을 파견하는 사내하청이 보편화돼 있기 때문이다. 26일 현대·기아자동차 등 산업계에 따르면 전남 대법원 판결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과 동등하게 대우할 경우 비용 증가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이로 인해 사내하청 업체는 원청업체를 의식해 2년 이상 장기 고용을 회피할 것으로 보여 고용 불안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번 판결의 당사자인 현대차 관계

자는 이날 “사내하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사내 법무팀에서 이번 판결의 위험 여부와 향후 대응책 등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비정규직 문제가 향후 노사협안으로 대두하고, 일부 해고된 사내하청 근로자가 추가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며 곤혹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노동부가 지난 2008년 고용보험 가입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963개 사업장 노동자 168만 5995명 중 21.9%인 36만8590명이 사내하청 노동자였다.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만 8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기에는 2·3차 하청업체 노동자는 빠져 있다. 이를 포함하면 사내하청 노동자는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금속노조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광주·전남에서만 사내하청 노동자는 1만여명에 달한다. 대략 현대삼호중공업이 8000여명으로 가장 많고, 기아차 광주공장 500여명, 금호타이어 350여명 등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노동계는 환영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사용자들의 비정규직 차별과 착취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사내하청의 정규직 전환투쟁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정규직과 임금차액을 보전하도록 요구하는 체불임금

지급 집단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 원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원청업체 입장에서는 비용증가에 따른 부담이 커 또 다른 사회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원청업체를 의식한 사내하청 업체는 원청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이 2년이 넘기 전 해당 노동자를 교체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어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법원 결정으로 원청업체와 사내하청업체의 계약관계에 변화가 불가피했다”면서 “이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유모차타고 바캉스 26일 서울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열린 아프리카 유모차 ‘스틱 플랫’ 출시행사 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아이들이 유모차를 썬베드 삼아 놓고 있다. /연합뉴스

상장사 시설투자 상반기 6조6500억 호남석화 5200억 등 작년보다 38% 증가 한컴 인수 7개사 제안서

올해 상반기 상장사들의 시설투자 공사가 4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반기 공시된 상장법인의 신규 시설투자 금액은 모두 6조6554억원으로 작년 상반기에 비해 38.17% 증가했다. 공시건수는 33건에서 74건으로 갑절 이상으로 많아졌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이 4조 6914억원에서 5조9608억원으로 27.06% 증가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1253억원에서 6946억원으로 무려 454.15% 급증했다. 업체별로는 LG디스플레이가 2조 2130억원(파주 생산시설 증설)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하이닉스 9210억원(공장증설 및 연구개발 등), 호남석유화학 5200억원(여천 NO공장 2차 증설 등), 한전기술 3314억원(분사속 신축), OCI 2950억원(포리실리콘 설비 증설) 등이었다. /연합뉴스

기업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한글과 컴퓨터(한컴)에 대해 7개사가 인수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글과컴퓨터에 따르면 이 회사의 매각 주안사들이 지난 23일 오후 5시까지 인수제안서를 접수한 결과 모두 7개사가 제안서를 제출했다. 매각 주안사들은 접수된 제안서를 토대로 자금조달 능력, 향후 한컴 운영 계획 등을 신중하고 충분하게 검토해 내달 초 복수사입자 이상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한컴의 최대주주인 셀론티에 치는 보유할 646만2703주(지분율 28%)를 매각기로 하고 지난 5월 20일 교보증권, 피데스투자자문을 주간사로 선정해 매각 작업을 진행해 왔다. /연합뉴스

대한항공에 이어 아시아나항공도 내달부터 일부 국제선 노선의 항공료를 대폭 인상해 이용객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2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아시아나는 최근 미주와 유럽, 대양주(호주) 일부 노선의 여객 공시운임을 내달부터 최고 평균 12.9% 올리는 인상안을 신고했다. 이달 초 대한항공이 일부 국제선 항공료 운임의 5~10% 인상을 신고한 지 20여 일 만이다. 아시아나의 인상안에 따르면 미주 노선 일등석과 비즈니스석의 운임은 각각 5%, 이코노미석은 7.4% 오르고, 유럽 노선의 일등석과 비즈니스석은 각각 10%, 이코노미석은 6% 인상된다. /연합뉴스

아시아나 국제선 항공료 내달 13% 올린다

Table with financial indicators: 코스피지수 1,769.07 (+11.01), 코스닥지수 488.14 (+4.45), 금리 (국고채 3년) 3.88% (+0.03), 원·달러 환율 1,191.10원 (-7.70)

국민은행장 민병덕씨 내정



이대통령 “대기업-중소 상생전략 만들라” 산업정책, 원점 재검토 지시

이명박 대통령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존 산업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제8차 녹색성장 보고 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 12일 청와대 참모들과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사전보고 회의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 발전 양상 등에 대해 우려

를 표시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발전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전략을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배석자들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산업정책을 기본부터 다시 잘 보라.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고유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되고 대기업에 맞는 투자 영역에 투자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중견기업도 큰

기업으로 뻗어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라”고 강조했다. 또 “대기업이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대신 과거의 성장모델을 답습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서 “부품 소재 분야도 중소기업이 열심히 해놓은 것을 가로채기만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발전을 위한 2가지 대원칙

으로 ‘원천기술 확보’와 ‘우수 중소기업의 독자적 영역 보전’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대기업은 스스로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정부가 직접 돕는 것이 아니라 규제 없이 길만 열어 주면 된다. 대기업은 국제 시장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해주면 된다”면서 “하지만 중소기업은 정책을 갖고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정부는 이 같은 기초 하에 산업 및 기업 정책을 기초부터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경제발전 전략의 핵심으로 내세운다는 복안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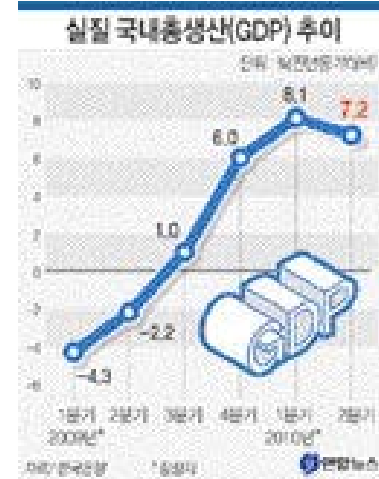
2분기 GDP 전년비 7.2% ↑

한은 발표 ... 수출 호조 1분기보다 1.5% 늘어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1분기 실질 GDP 증가율(8.1%)과 합산한 상반기의 경제 성장률은 7.6%로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은은 26일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기 대비 1.5%, 전년 동기 대비 7.2%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전기 대비 성장률은 한이 지난 12일 발표한 수정 전망치(1.2%)보다 0.3%포인트 높았다. 상반기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7.6%로 나타났다. 이 역시 수

정 전망치(7.4%)를 0.2%포인트 웃도는 수치다. 반기 기준으로는 2000년 상반기 10.8% 이후 가장 높았다. 한은 김명기 경제통계국장은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강한 성장세를 지속해 금융위기 이전의 정상 수준 회복에서 더 나아가 어쩌면 확장 국면에 진입해 있을 가능성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2분기 경제가 이처럼 호조를 보인 것은 민간소비가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설비투자가 증가하면서 제조업 생산이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결과다. /연합뉴스



남성성기능강화제 advertisement with text about health benefits and contact information: 010-7770-8138

토지매매 advertisement for land in Naju, listing details like location, area, and price: 011-620-3960

믿음공인중개사 advertisement for real estate services, listing various properties and contact info: 011-620-4207

효성공인중개사 advertisement for real estate services, listing properties and contact info: 011-602-4207

금산공인중개사 advertisement for real estate services, listing properties and contact info: 011-601-5854

인생열쇠 advertisement with motivational text and contact info: 062-383-8982